

## 고배 풀린 물가 서민 경제 비상

5월 들어 물가가 줄음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에 결혼시즌까지 겹쳐 가족이나 지출이 많은 데 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비와 식료품, 주류, 유류 등 생활물가마저 요동을 치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광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451.51원으로 전날보다 1.89원 올랐다.

광주의 4월 넷째 주 보통휘발유 값은 리터당 1천427.66원으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1천413.70원) 이후 18주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 11월 정부 유류

의 640ml 페트병 가격은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200원(7.1%) 뛰었다.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롯데주류와 지역 소주업체도 소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맥주 시장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5.3% 올렸다. 오비맥주의 '카스', '프리미어OB',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가 평균 5.3% 인상됐다.

이같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고스란히 통계 지표에 반영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중 광주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2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상승했다.

### 지출 많은 5월, 식료품 등 생활물가 줄음이 인상 서민 술 소주값 올려...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도 ↑

세 인하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휘발유 값은 지난 2월 둘째 주 1천328.36원을 마지막으로 변동하기 시작해 10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의 유류세 조정에 따른 세금 인하 폭이 15%에서 7%로 감소하는 오는 7일부터는 휘발유 유류세가 58원, 경유는 41원이 상승하게 돼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1천500원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서민 술인 소주 가격 인상 소식도 부담이다.

하이틴진로는 지난 1일부터 소주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함에 따라 유통업체의 소주 소매가격도 올랐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360ml 병 제품 가격이 1천660원에서 1천800원으로 140원(8.4%) 올랐다. 두 제품

4월 중 광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4.22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등록품목을 보면 달걀(27.3%)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감자(25.5%), 돼지고기(15.3%), 사탕(10.0%), 마늘(6.9%) 순으로 상승했다.

지출목적별로는 전월과 대비해 교통(1.5%), 식료품비주류음료(1.3%), 오락·문화(1.0%),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통신(0.3%) 부문이 상승했다.

전남 역시 물가 상승세를 보였다. 4월 중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7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도 105.00으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임후성기자



광주수영대회 대구가 응원합니다! 2일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크트인 수리·달이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남정달 대구시수영연맹 회장, 대구시청 핸드볼 선수 등 내빈들이 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 관련기사 3면 /광주시 제공

## 전남 신생아 분만건수 6년만에 33% 줄었다

### 출산 인프라 낙후...3명중 1명 원정출산 '전국 최고' 광주지역도 분만 가능 의료기관 감소율 62.5% 달해

최근 6년 동안 전남지역의 신생아 분만건수가 3분의 1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해 저출산 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6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의 분만 건수는 지난 2013년 1만786명에서 지난해에는 7천219명으로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숫자도 급격히 감소했다.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24곳 중 15곳이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아 감소율은 62.5%였다. 이와 달리 전남의 경우는 14곳에서 16곳으로 2곳이 증가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주변 대도시로 원정출산 현상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신생아 분만 수는 7천219명이었으나 출생신고 수는 1만1천200명이었다. 3천981명(35.5%)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다. 전남의 원정출산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반면 지난해 광주지역 신생아 분만 수는 1만3천337명인데 출생신고 수는 9천100명에 그쳤다. 4천237명이 타 지역에서 원정출산을 온 것이다. 이는 병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등 전남지역의 출산 인프라가 낙후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분만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분만취약지는 1시간 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곳으로, 전남에서는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이 지정돼 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산부인과에는 시설비 10억원과 6개월 기준 운영비 2억5천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 시군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해당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경우는 전국 평균 23.4%에 그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전남의 경우 약 4천여 건의 분만이 적은 반면, 인접 대도시인 광주는 4천여 건의 분만이 더 발생했고, 경남은 3천여 건의 분만이 부족한 반면, 부산은 3천여 건이 초과돼 권역별로 대도시 원정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초저출산 시대에 농촌지역의 분만감소는 더 심각하다"며 "권역별로 산모들의 대도시 원정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만시설의 숫자만을 늘리려는 현 지원정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 국무총리실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지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무총리실을 청년 문제 해결의 '콘트롤타워'로 지정하고 당정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

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청년미래기획단 간사인 김병관

의원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당내 상설기구로 청년미래전략회의를 출범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청년정책협의회를 청년미래전략회의로 확대 개편하고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석회의에서는 당의 청년 정책과 예산, 청년과의 소통, 청

년의 정치 참여 문제 등을 포괄해서 다루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지 등의 문제도 이 회의에서 검토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적극 의견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 휴무 6일자 신문 쉼니다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문화산책] 김옥순 화가

제2회 광주매일신문 회장배 골프 대추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DMZ 民+평화인간띠운동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손해보험협회

##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oo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NH농협손해보험